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Domus

A+U

신건축

건축문화

##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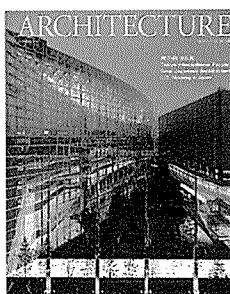
96년 10월호

10월호 디자인 특집은 최근 일본 건축을 주제로 거품경제의 여파가 사라지고 있는 최근 동향과 더불어

미니멀리즘 계열의 요시오 타니구치의 작품과, 특이한 재료, 구조, 형태로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시게루 반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고, 라파엘 비놀리의 도쿄국제포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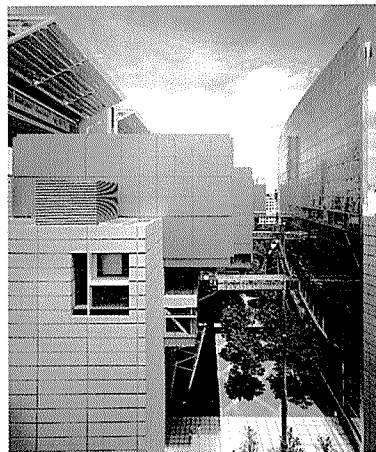
### 최신 일본건축

▶ 일본의 거품경제시대에는 수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현실화하였다. 2차대전 이후 꾸준히 누적되어 온 노력들이 결실화되면서 최고의 경제적 부흥을 도래시켰기 때문이다. 노트르담 성당을 연상시키는 두 개의 높은 탑 형상을 한 Kenzo Tange의 도쿄시청, Arata Isozaki의 미토문화관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2차대전의 패배에 기인한 듯한 일종의 열등감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외국 건축가들에게 맡기는 결과를 낳았다. Philippe Starck, Peter Eisenman, Nigel Coates, Norman Foster, Renzo Piano 등 많은 건축가들이 최고급 대우를 받으며 사치스런 건축물을 일본에 남겼다. 하지만 이제 이들 건물은 초인간적인 스케일과 높은 공사비로 시민의 세금만 높은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품시대가 마감된 후, 이들 건물 중



에는 도산하여 그 용도가 바뀐 것도 있고, 텔레포트 타운과 같이 시공 도중 계획이 취소된 예도 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소규모의 작품을 배출해내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목할만한 작품으로 ▶ 순수한 요소들의 엄격한 질서가 돋보이는 Yoshio Taniguchi의 작품으로 도쿄의 카사이 링크아 뷰포인트 방문객 센터, 도요다 미술관, ▶ 종이라는 재료를 통해 고오베에서 구조적 실험을 하고 있는 Shigeru Ban의 종이교회, 종이주택이 소개되어 있다.

▶ 최근 완공된 도쿄국제포럼은 우루과이 태생의 Rafael Viñoly의 설계로, 8200평에 달하는 대지에 16.5억불의 공사비를 투자한 20세기의 최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일본의 거품경제가 창조한 마지막 작품이다. Viñoly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컨셉트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념비적인 동시에 일반인에게 친근감을 주는 거대 건축물군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도심 삼각형의 대지에 위치한 국제포럼의 디자인은 기능적으로는 명확한 프로그램의 분배를 이루고 있으며, 80년대 미국, 유럽 건축가들의 일본내 작품에서 보이던 과격성이 제거된 침착함, 겸허함이 강조되어 있다. 내부에서의 투명성과, 그것을 잇는 동적인 형태의 연결로가 접근 동선을 원활하게 하면서 전통적인 외부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초대형의 스케일과 외부와 차단되는 입면, 그리고 갖가지 자유로운 행위들을 제한하는 프



도쿄국제포럼(Rafael Viñoly작)

로그그램은 시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용, 연극 공연, 연주회용 홀 4개와 대규모 회의장과 만찬홀로 구성된 대규모 건물군으로, 각 홀에 대한 도면과 정보도 소개되어 있다.

### 테크놀로지

▶ 도쿄국제포럼의 복합적인 시공 절차에 대한 기술적 설명, ▶ 목조 구조의 다양한 가능성, ▶ 미국식 목조 주택의 일본에서의 효용성, ▶ Lightscape Visualization System에 의한 컴퓨터 렌더링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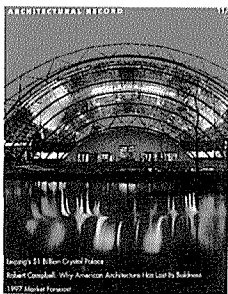
▶ 자연 경관이 뛰어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증가하는 관광객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미국의 국립공원, ▶ 미국의 한 교외지역을 도심으로 끌어들이 목적으로 계획된 초대형 쇼핑몰과 그 입면에 대한 비판이 다루어졌다.

## Architectural Record

96년 11월호

### 〈근작 소개〉

에서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건축된 수정궁, 미국 워싱턴 주의 올림픽 컬리지 셀튼, 세인트 루이스의 에릭 P. 뉴만 교육회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물종류에 따라 최근의 작품들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에서는 특수한 요구사항이 부가되는 건축물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최근 미국건축이 외국에 점점 뒤져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게재되어 있다.



### 근작소개

▶ 구 동독지역에 들어서 그 지역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 노이에 메세 라이프치히는 대규모 종합박람회장으로 도로체계, 조경, 연못, 박람회장들, 수정궁이 체계적으로 조합된 프로젝트이다. 렘 콜하스, 리처드 로저스 등도 참여했던 국제 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Von Gerkan, Marg & Partner(GMP)의 계획안은 조직적이면서도 공원과 같은 느낌을 주는 분산적인 배치가 돋보이고 있다. 특히 Ian Ritchie가 설계한 수정궁은 계절에 따른 열, 채광, 통풍 관리가 과학적으로 고려되어 있으며, 디테일은 19세기의 수정궁들을 연상하도록 설계되었다. ▶ 미국 워싱턴 주의 숲 속에 자리잡은 올림픽 컬리지 셀튼은 경제성과 주위 경관과의 조화가 관건인 학교계획이다. Miller/Hull Partnership의 설계는 주위 자연과 잘 고려한 인테리어가 특히 돋보인다. ▶ 세인트 루이스의 워싱턴 의과대학 내에 위치한 Cannon의 에릭 P. 뉴만 교육회관은 다이내믹한 볼륨의 형태가 자연 채광에 의해 더욱 강조되는 작품이다.



노이에 메세 라이프치 종합박람회장

### 연속기획 - 특수 기능의 건축물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증가하면서,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회관 등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은 특수한 기능적 프로그램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일반적인 건물들로부터 유리되고자 하지는 않기에,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건축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을 사회 일반 주류에 재편입시

키고자 하는 것이다. H.J.C. 보우덴 앙로원, 노스이스트 벨리 다목적 앙로원, 켈로그 회관, 크리스토퍼 플레이스, 뉴올리안즈 대학 자원 훈련 및 보조기술 회관, 유니언 구호 회관 등의 예를 소개하였다.

### 비평 - 왜 미국 건축은 외국에 뒤쳐지고 있는가?

근래의 미국건축과 동아시아, 유럽의 건축을 비교하자면 후자가 훨씬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건축자체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확연히 차이가 있다. 베를린에서는 건축의 정치성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건축유산의 영원성을 역설하였으며, 마드리드 일간지의 문화란에는 건축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설계 경기를 활발하게 개최하여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30대에 의미있는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건축주의 끝없는 참견과 일반인의 무관심에 지치고 50대에 비로소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미국의 건축가와 상반된다. 미국은 영화와 컴퓨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더욱 관심이 있는 듯하며, 이러한 경향은 건축에도 보여 일부에서는 시공보다는 출판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드웨어 분야인 건축도 분명 문화적 수준의 중요한 척도이며, 그렇기에 더욱 분발해야만 한다. 과감성, 자유로움, 창조력, 열망 등이 건축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예술이 분명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며, 그래야만 자국과 타국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기타

▶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도시계획 국제 설계경기 결과, ▶ 뉴욕시에 등장한 Rem Koolhaas 설계의 소형 미술관 레만 모핀 갤러리, ▶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에 시공 중인 Adriaan Geuze의 프로젝트들, ▶ 1996년 건축업계의 각종 통계값과 97년의 전망, ▶ EIFS(외부 차단 및 마감

시스템)에 의한 효과적인 방수, 절연 디테일, ▶ 컴퓨터 소프트웨어 Architrion VI와 Lightscape 2.01의 비교, ▶ 미끄럼 방지용 바닥 마감재, ▶ 사무실의 방음설비 계획 등이 소개되어 있다.

## Domus

96년 10월호

### 근작 소개

이번호에서는 근작소개로 서아프리카의 한 보건소 및 빌라, 일본건축가 Arata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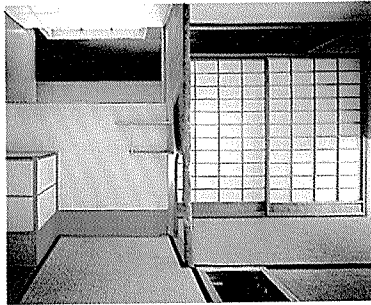
Isozaki의 작품, 스위스 쥐리히의 IBM 빌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오늘날 건축에 있어 문화적으로 연관된 유사한 요인들을 혼합시키고자 하는 초문화성에 관한 비평이 실려있다.

▶ 핀란드 건축가 Mikko Heikkinen과 Markku Komonen이 서아프리카에 설계한 보건소와 빌라는 그 지역의 재료와 건축법을 사용하여 범세계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낸 예를 보여주고 있다.

▶ 일본 Arata Isozaki의 두 소규모 작품인 우지-안과 요보-칸은 전통적인 차의식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공간, 재료로 전환시킨 것으로, 그의 건축철학을 재속고해보는 작품이기도 하다.

▶ 그 외에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Mario Campi와 Franco Pessina의 IBM 오피스 빌딩, 이탈리아 밀라노 근교의 Emanuele Fianco, Stefano Guidarini, Pierluigi Salvadeo가 설계한 집합주거,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Vincente Guallart의 원룸형 주택,

Renzo Piano의 카나 문화관, 프라하 궁에 대한 Borek Sipek의 부가 디자인, Elsa Prochazka가 설계한 비엔나의 베토벤, 모짜르트, 슈베르트, 스트라우스, 하이든 등의 음악과 박물관이 소개되어 있다. ▶ 건축 외 분야의 디자인으로 Nanni Strada의 직물 작품들, Marc Sadler의 인체 공학에 기반한 스포츠웨어 디자인, Vespa 경오토바이사의 50년사 등이 다루어졌다.



우지-안(Arata Isozaki 作)

### 행사 - UIA(국제 건축가 연맹) 바르셀로나 '96

1992년의 올림픽을 위해 재조직된 바르셀로나는 성공적인 건축 및 도시계획의 좋은 예이며, 그렇기에 UIA를 개최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도시였다. 공무원들의 회합이었던 기존의 UIA와는 달리, 바르셀로나 UIA는 문화로서의 건축도 강조하여 약 60여명의 '스타' 건축가들을 초빙하였다. Gaudi전, Dali와 건축, 미니멀리즘 건축전 등 18개의 전시회가 시 전체에 산발적으로 열려 관객의 분산을 꾀했지만, 건축가들의 강연회로 사람들이 몰렸으며, 그또한 강연보다는 사인회에 더 비중을 둔 것이었다. 바르셀로나 UIA는 점점 더 오락문화사업화 되어가는 건축계의 모습과 그 폐해를 잘 보여준 행사였다.

### 비평 - 초문화성에 관하여

오늘날 문화에 관한 담론은 각 문화권의 독자성이나 그들 사이의 교류, 복합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초문화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내적 연계, 혼합, 상호교류를 강조하는 초문화성은 그러나 개별적 문화권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영역이 뚜렷한 문화권들의 병치에서 서로의 특징이 나타났다면, 오늘날에는 서로 연관된 유사한 요인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국제화시대에 국경을 넘어 프로젝트를 맡는 건축가들에게 이러한 초문화성은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 - 인체 시뮬레이션

역사를 통해 인체의 재현은 형태의 인식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어왔다. 영화와 비디오가 촬영을 통해 존재하는 인체의 운동을 재현할 수 있었다면, 컴퓨터 디지털 그래픽은 과거의 회화와 같이 촬영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체를 재현하고 운동시킬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장애가 되는 것은 엄청난 정보 처리량을 감당할 컴퓨터의 부재와, 관성, 중력, 탄성 등에 관계된 인체 움직임에 대한 물리적 이해의 부족이다. 그렇기에 인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은 기술과 관계된 것만은 아니며, 현상과 그것의 인식 방법에 대한 이 시대의 보다 정확한 지식에 기반을 둔 문제이다.

### 미술 - Antoni Miralda전

1996년 바르셀로나와 이어서 발렌시아에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 Miralda는 오락과 예술의 경계에 위치한 소비-예술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일상 공업품, 민속물, 종교용품들의 접합을 통해서 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기타

▶ 독일 아스펜에서 열린 제46회 국제 디자인 회의에 관한 비평 ▶ 인체의 변형에 기반하여 컴퓨터로 디자인된 Andrew Martin의 가구들 ▶ 서양의 전통적인 투시도적 재현 기법을 부정하는 헝가리의 컴퓨터애니메이터 Tamas Waliczky의 작품들 ▶ 멕시코 화가 Fernando Leal Audirac의 반추상회화들 ▶ 포르투갈에 있는 Alvaro Siza의 작품들과 그 위치 등이 다루어졌다.

## A+U

96년 12월호

12월호의 주제는 리노베이션으로 특히 프랑코 알비나 카를로 스카르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스페인 작가들은 Josep Linás Carmona / José Antonio Martínez Lapeña & Elías Torres Tur / Guillermo Vázquez Consuegra이며, 이탈리아 작가로는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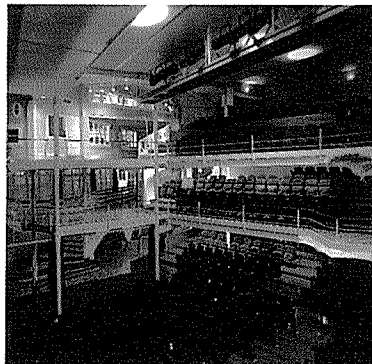
건축가의 활동 영역에서 리노베이션이 점하는 위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테마는 특히 유럽에서 중요시되며, 이에 상응하는 나라들을 꼽자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국가의 상황은 매우 상반되는데, 현대건축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스페인은 다소 그 활기가 수그러진 감은 있으나 그들의 건축은 아직 세계의 이목을 끄는 것들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현대건축이 瀕死상태에 이른 국가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상황에서 예외적 인물이 렌조 피아노(Renzo Piano)로 그의 작품은 건축계의 어프로치면에서나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그의 활동의 장으로 보나 나머지 이탈리아인들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아노는 기술적 가능성을 넓혀가는데도 정평이 나 있지만, 첨단 기술과 자

연과 역사의 산물을 조화시켜 나가는데는 그에게 견줄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페인의 건설산업은 유럽에서도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는 편으로, 전통적 소재를 사용한 수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페인 건축의 매력은 이러한 전통적 공법과 전통적 형태를 추상화시킨 의장을 입힌 현대적 형태사이의 긴장 관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이 유럽에 있어서 인기있는 이들 두 나라의 매력은 사실은 서로 반대의 이유에 기인한다. 피아노의 경우는 기술달인의 측면에 의한 것이며 스페인의 경우는 기술의 미개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과거와 현재의 소재와 형태를 원만히 융합, 주변에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견지하고 있는 건축을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 호세 안토니오 마르티네 라페냐(José Antonio Martínez Lapeña)와 엘리아스 토레스(Eliás Torres)는 스카르빠의 영향이 명백히 보이는 작가들로 비교적 다작을 한 그들의 작품은 즐겁고 시적인 창의력에 가득차 있다. 소개된 작품은 Baldiri Reixach School의 리노베이션이며 바르셀로나의 구엘공원에 있는 이 건물은 원래 가우디의 손이 간 작품이기도 하다. 이들의 작품은 일관된 작품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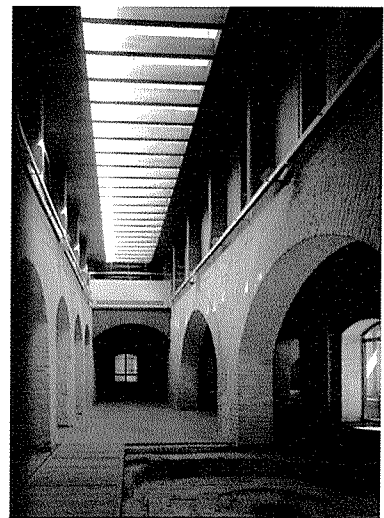
반면 ▶ 조셉 지나스(Josép Linás)의 경우 기존의 건물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의 작품의 차이가 확실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기존의 작품이 명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원안에 충실하려 하는 반



메트로폴 극장(조셉 지나스 작)

면 기존의 건물이 수준이하라고 판단 될 때에는 그는 다른 방침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소개된 작품은 Teatro Metropol(메트로폴 극장)개수이며 여기서 그의 방침은 가능한한 충실히 修復하는 동시에 현대의 연출수준과 법적 규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따라서 무대부분은 완전히 새로 디자인 하였다.

▶ 킬레르모 바스케스 콘세그라(Guillermo Vázquez Consuegra)는 그의 활동지역인 Andalucía의 역사적 건축물에 관한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소개된 작품인 Andalusian Heritage Institute "The Monastery of Seville"에서는 기존의 수도원 건물중 비교적 건축적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그는 상대적으로 좀더 자유로운 작업을 하였다.



Seville 수도원  
(킬레르모 바스케스 콘세그라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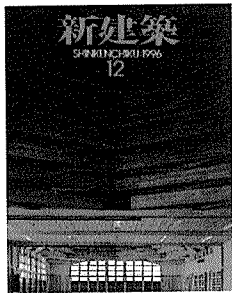
▶ 렌조피아노의 건축은 유기적 기술의 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기적 기술은 푸진과 비올레르의 디자인이나 이론서에 그 맥이 닿아있다. 즉 네오 고딕인 것이다. 이러한 네오 고딕은 영국에서 그 절정을 이루어 지금의 하이테크건축에 이르고 있는데 피아노와 영국건축사조와의 관계에 대한 배후를 살펴보면 풍피두 센터의 설계경기에서 그의 파트너였던 리처드 로저스와 영국의 천체적 구조 엔지니어였던 피터 라이스와의 관계가 있다. 또한 그 이전에 밀라

노 대학시절 당시 교수였던 프랑코 알비니의 영향을 들 수 있겠다. 소개된 그의 세 개의 작품 중 피아트사의 Lingott 공장의 재생은 모더니즘 건축의 대명사였던 기존의 거대한 공장건물을 탈공업화 시대의 도시의 축소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상부에 설치된 양파모양의 유리로 씌워진 회의실은 스페인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피아노의 기술을 나타내기도 한다. Cultural Center Jean Marie Tjibau는 리노베이션은 아니지만 이번호에 소개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문화에 대한 수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그의 유기적 관계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상은 Peter Buchanan의 권두 논문 'The Renewal of Building Culture'를 중심으로 요약한 것임)

## 신건축

96년 12월호

이번호 특집에서는 '나무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목조를 이용한 공간의 이용에 대한 유용성과 현재



그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14개의 목조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나무를 내장재가 아닌 구조재로서 사용한 작품들로 1987년 이후로 계속돼온 일본에서의 목조 붐을 반영하고 있다. 특별기사에서 하이퍼 빌딩에 대해 파올로 솔레리아와 렘 쿨하스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 특집-나무의 공간

4년전 '나무의 공간 -신목조건축의 디자인과 니테일'이라는 제목의 (신건축의) 임시증간호가 발행되었었다. 1987년 관계법령이 바뀜에 따라 대규모 목조건축이 가능하게 된 일본은 목조건축의 붐을 맞이하게 되었다. 4년전은 그 붐의 결과 많은 목조건축물들이 완성되었던 첫 번째 피크에 해당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여전히 그 기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목조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하나는 목조를 요구하는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또 하나는 좀더 건축적인 사고에 있어서 철, 유리와 같은 재료에 대한 대체물을 찾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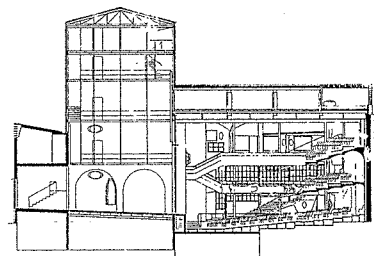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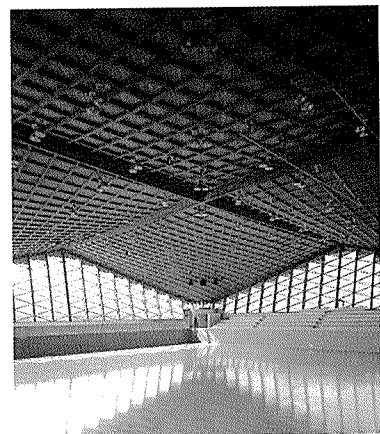
### • 대담 : 왜 목조인가-애매한 재료의 가능성을 살핀

현재 일본에서의 목조건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목조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 이 대담에서는 먼저, 새로운 목조(일본의 전통적인 목조가 아닌 목조-이것도 일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연구되다가 잠시 단절이 있은 후 최근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에 대한 생각은 독일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일차대전 이후 철재가 부족했던 독일에서 대용품으로 목재의 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스마닝의 무선 목탑'과 같은 것이 모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그와는 또다른 방식의 목조건축이 활발히 이루어 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목재의 유통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공(세공의 반대 개념)기술에도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목재의 애매성에 대한 지적에서 지금의 일본인들은 너무 목재를 철재와 같이 굳은 재료로써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목재는 그 특성상 변형이 일어나고 부드러운 면이 있는 반면 현재 쓰여지는 목재는 철제구조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외 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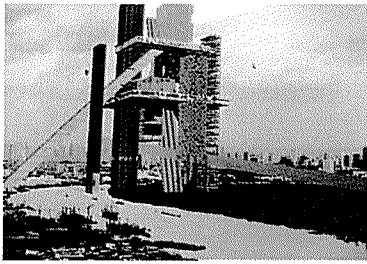
트의 연결방법 등을 거론하였다.

앞으로의 목재의 이용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목재사용에 있어서 집성재 등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가진 목재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목재 고유의 특성에 맞는 이용방법 모색의 필요성, 그리고 독일에서와 같은 공업적 생산에 의한 목재 가공방법의 도입 등을 언급했다.

목조 작품으로는 ▶ 府中시립 총합체육관 (市浦道시개발건축 컨설턴트+第一工房)의 체육관 건물 2개와 ▶ JR二條역과花園역 ▶ 마벨스타 伊王野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一色건축설계사무소)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府中시립총합체육관(市浦道시개발건축 컨설턴트+제일공방 작)



하이퍼빌딩(렘쿨하스+OMA 공동설계)

### 특별기사-하이퍼 빌딩

하이퍼빌딩은 21세기를 서포트할 10여 만명의 초고밀도를 상징한 도시적 규모와 기능을 갖춘 인프라스트럭처로서, 높이 1000m, 연면적 1000ha, 이용年數 1000년의 장수명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4년 12월에 '하이퍼빌딩 연구회'가 발족한 후 13개의 부회로 나누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바, 전체 기본 구상을 정리하기 위해 古谷誠章, 렘쿨하스, 파올로 솔레리 3인에게 올해 4월 위탁, 10월 17일 동경에서 국제심포지움의 일환으로 프리젠테이션이 행해졌다. 파올로 솔레리의 프로젝트는 미국 모하비사막에 세우게 될 거대한 탑으로 'Arcology Major'라는 제목을 지녔다.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rcology(완전한환경계획도시)가 주요 개념을 이룬다. 렘 쿨하스의 하이퍼 빌딩은 타이의 방콕에 계획되어진 것으로 그는 건설의 과정도 8년에 완공하는 단기 시나리오와 70년간에 완성하는 장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古谷誠章의 하이퍼 스파이럴은 동경에 계획되어졌으며 나선형의 구조체가 도시의 도로망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건축문화

96년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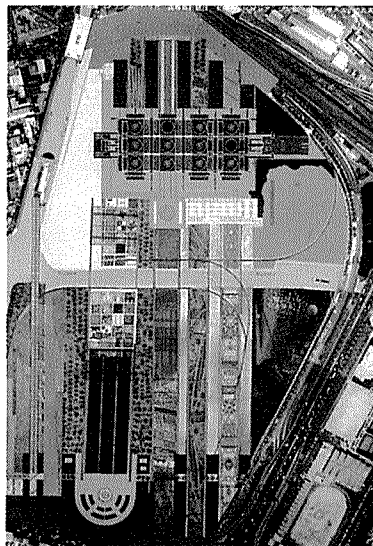
12월호에서는 7.9월호에 이어 장 누벨의 지어지지 않은 100개의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집으로는 '틀뢰즈의 사상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7개의 아티클을 소개하고 있다. 연재물로는 공간의 시네마토그래피-퍼플러 아방가르드와 근대건축 / 초현실주의 제3회 '근대적 상상력' / 구조가 열전 최종화-산티아고 카라트라바가 소개되었다.



### 장 누벨의 미완의 프로젝트 100

소개하기로한 100개의 프로젝트중 남아 있던 No.0-No.25까지의 프로젝트가 소개 되었다. 장 누벨의 최초기서부터 1996년까지의 미완의 프로젝트인 이들은 다양한 빌딩 타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되지 않은 계획안인 관계로 그의 논리의 절도를 잘 알 수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있다. 300여개에 이르는 프로젝트 중 엄선된 100개의 프로젝트는 누벨 그 자신도 애착을 갖는 것들이기도 하다.



장 누벨의 미완프로젝트들 가운데 한 작품인 Parc De La Villette

### 특집-질 들뢰즈

작고 데리다의 작업에 의해 촉발되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의 디컨스트

럭티비즘의 기세가 약해졌을 때에, 피터 아이젠만이나 제프리 키프니스를 중심으로 하여 소위 變적인 건축이 디자인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건축의 사상적인 백그라운드는 주로 일리아 프리고진에 의한 散逸構造理論과 질 들뢰즈의 (繫-라이프니츠와 바로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철학자라는 것은 개념의 차원에서 창조하는 사람, 즉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개념이라는 것은 세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true=도구인 것이다. 미셀 푸코와의 대담에서 이와같이 말한 들뢰즈는, 이미지의 사고를 깊이 깨닫고 現働化する 개념을 차례차례 창출해 나갔다. 그는 생물학이나 지질학, 회화,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영역을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건축도 건축이외의 여러 영역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건축사고를 창출해 내기 위한 일 것이다.

그러나 건축이 들뢰즈의 텍스트에서 (컨셉트)를 차용하거나 인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들뢰즈는 시장논리에 속한 (컨셉트)를 엄격히 비판한 적이 있다. 반면 건축가의(컨셉트)가 되는 것들의 다수가 시장논리에 속한 케치 프레이즈로서의 기호인 것이다.

쉽게 유통 가능한 (컨셉트)로서 기호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개념)을 단련시키는 일과, 텍스트의 이미지를 복사한 것으로서의 건축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축이라는 지도를 그려내는 일이 건축에 있어서 들뢰즈를 읽는데서 오는 유일한 가능성일 것이다.

- 後藤武의 「들뢰즈의 사상 키워드」 중에서 -

〈번역/강상훈, 최원준〉